

특집
논문

마을공동체와 여성

공공성과 젠더화된 돌봄의 딜레마

김영정 _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논문요약

도시 내 마을공동체가 주목받게 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동의 압도적 비중이 여성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마을과 여성의 관계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첫째, 마을공동체와 여성의 관계를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 추구의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둘째,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한 거점으로서 마을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3개 여성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분석하였다.

사례 공동체의 여성들은 아이 돌봄을 매개로 한 사적 네트워크에서 시작하여 조직적인 모양새를 갖추면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성장을 경험하고 활동의 공공성을 획득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개인 차원의 돌봄에 관한 필요와 욕구 충족을 넘어 주제 의식과 영역을 확장하면서 참여자들도 단순 참여가 아닌 ‘활동’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특유의 친밀성에 기초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런

* 본 논문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 분석 및 여성참여의 지역거점활용 방안」(2015)의 일부를 심화, 재구성한 것임.

데 마을 활동 참여 여성들은 현재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로 인정받기보다는 단지 사업에 동원되고 대상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험과 기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 마을이 필요로 하는 돌봄 활동을 전담하다시피 한다면 이는 가부장적 가족 내 성 역할이 지역사회로 그대로 확장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지금 돌봄의 가치를 확산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교두보로서 기능하는가, 아니면 가정의 가부장 위치를 지자체로 고스란히 이동하여 여성을 동원하는 시스템이 되고 말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젠더화된 돌봄에 대한 성찰, 살림과 돌봄에 대한 재가치화, 마을 공공성의 여성주의적 해석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주요어: 마을공동체, 공공성, 돌봄, 살림, 젠더

1. 들어가며

도시생활에서 공동체에 대한 갈증과 대안적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국내외 공동체 사례가 소개되면서 근래에 도시 내 마을공동체가 주목받게 되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확산은 흔히 공동체 해체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신자유주의의 팽배로 인한 상호 신뢰의 약화(김찬동 2012) 등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모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추어 서울시에서는 2012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이후 빠르게 체계를 추진력을 갖추고 사업을 확대해왔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는 누가 만들고 참여하는가? 실제로 마을공동체 참여자 구성에 여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자료의 한계와 마을사업의 특성상 마을 활동 참여자 수와 성별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만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1기)에 참여한 주민의 수를 통해 비율을 파악하면, 직접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은 73%로 압도적이었으며, 여성 중 30~40대가 67%를 차지하였다. 좀 더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표 제안자와 다차 참여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각각 76%, 75%로 높게 나타났다.¹⁾ 실제로 마을 활동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마을 활동 참여자는 추산된 수치보다 더 많아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평균으로 산출했을 때 “40대 여성, 기혼, 자녀를 둔 주부”로 나타난 바 있다.²⁾

이같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력이 여성임에도, 마을과 여성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여성이 마을에 기여한 역할과 영향력은 무엇인지, 여성의 마을 활동 참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마을공동체 활동이 압도적 비중의 여성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과 여성의 관계, 즉 여성이 마을에 기여한 방식 및 여성이 마을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변화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 1) 참여자 중 성별 정보를 확보한 2만 2,899명 대상 분석 결과(안현찬·구아영 2017, 41-42)
 - 2)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결과로 추산(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3, 105).

여성은 종종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칭송’ 받지만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진화의 과정을 돌봄과 살림 가치 확산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마을 활동에서 여성 참여와 관련된 가치를 돌봄과 살림에서 찾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는 “상호부조와 연대적 삶의 공간”을 지향하며, 마을공동체 운동의 의미는 친밀한 이웃 관계 형성과 다양한 돌봄 실천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육아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행위를 개별 가족에게 전담시키지 않고 함께 실천하면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을 키울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나종석 2013). 성미산 마을을 비롯한 마을 재구성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마을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한혜정(2006)은 마을공동체 형성의 근거로 “돌봄 사회”의 구성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 구체적으로 가족해체와 저출산, 고령화와 안전망의 파괴, 교육의 파탄 상황을 돌파할 주체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면서 돌봄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재편을 위한 근원적 질문과 그 재편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일의 핵심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공식/지하 영역에서 돌봄을 감당한 이들의 경험을 사회화하는 것이다(조한혜정 2006, 21-22).

본 연구는 공공성이 재구성되는 장으로서 마을공동체를 바라보고, 돌봄의 가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를 공공성의 고려와 획득이라고 본다. 돌봄이 개인 또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 마을공동체와 지역으로 확산될 때 어떻게 공공성이 고민되는지, 돌봄이 공공성을 획득할 때 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주체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전의 자원봉사 또는 관계 동원의 성격을 띤 지역 활동과 달리 자발적 마을공동체 활동은 육아 등 개인의 필요와 욕구 충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지향한다고 보고, 돌봄과 살림이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 공공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 마을 활동 참여자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마을공동체와 여성의 관계를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 추구의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둘째,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한 거점으로서 마을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마을, 여성, 돌봄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부상된 시기에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과 주민자치 측면의 의의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젠더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도시에서 공동체성 회복의 의미와 민관 협력 방식에 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정규호 2012; 김찬동 2012; 나종석 2013; 조한혜정 외 2006; 유창복 2013). 실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게 표방하고 있는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로컬 거버넌스 실현이지만,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이 관 주도로 진행될 때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심지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새마을운동과 비견되면서 비판받기도 한다. 박주형(2013)은 서울시의 정책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마을'이나 '공동체'가 지나치게 이상화·낭만화 되어 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치 기획의 일부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마을공동체 사업이 의도치 않게 기업가적 주체의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일상에 침투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상화·낭만화 경향은 젠더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담론에 공동체의 '회복' 내지 '복원'의 욕구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품앗이나 두레가 활발했던 과거의 공동체성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공동체가 성역할이 엄격하게 고정된 남성 중심의 사회에 존재했던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조옥 2013). 또한, 공동체와 관련한 담론에 나타나는 '정상 가족' 중심의 젠더 질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을에 대한

논의가 가족, 즉 이성애 제도와 성별 분업 체제에 입각한 ‘정상 가족’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가 단순히 가족의 확장으로서 상상될 때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과 가족주의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울시 마포와 은평 지역의 비혼·퀴어 페미니스트들의 사례를 살펴본 전희경(2014)은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면서, 비혼, 퀴어,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운동을 벌인 두 그룹의 사례가 이성애·가족 중심의 관계망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에 도전하고 공동체 의미를 재정의 했음을 보여주었다.

젠더 프레임으로 마을을 바라볼 때 돌봄과 살림의 의미와 실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을공동체는 “상호부조와 연대적 삶의 공간(나종석 2013)”을 지향하며, 그 핵심에는 돌봄이 있다. 지역(local)의 중요성은 공사의 연결 기능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역의 이웃 연결망이 도시 마을공동체(urban village)의 가치, 즉 아이와 어른에 대한 돌봄의 과제를 커뮤니티 차원에서 더 폭넓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돌봄 서비스가 지나치게 중앙 중심화·기관 중심화 되었을 때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여 이웃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질의 돌봄을 가능케 한다고 알려져 있다(Jaeckel & Celdermalsen 2006).

돌봄이 불평등하게 수행되어왔다는 점에 대한 지적(트론토 2014)과 함께, 돌봄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오랫동안 돌봄을 사적인 것으로 간주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돌봄에 관한 여성주의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비가시화시킴으로써 여성들이 마치 사회에 기여하

는 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돌봄 활동을 행하는 여성의 열악한 위치를 고착화한 데 대한 비판에 있었다.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종속적 지위를 유지시킨다. 따라서 돌봄의 책임을 개별 가족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할 과제를 인식하는 것, 즉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여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키테이(Kettay)는 롤스(Rawls)의 사회적 정의의 2개 원리, 즉 정치적 자유를 분배하는 정의의 제1원리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정의의 제2원리에 이어 “보살핌의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이를 허라금(2006)은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그 원리는 “각자의 보살핌 능력에 따라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연결망을 마련하고, 보살핌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있다. 이것은 보살핌 일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모든 이가 보살핌의 능력을 갖추고 보살피는 관계에 적절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이다(허라금 2006, 137-138).

실제로 공동육아, 부모 커뮤니티 등 돌봄 중심으로 발달해온 마을공동체는 그동안 여성들에게 전담되고 가족 안에서만 고립되어 수행되던 돌봄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김영선 2013). 그리하여 지역의 커뮤니티는 사적 영

역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공적 영역에 끌어들여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한 다거나(Martin 2002), 공공과 민간 사이,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Jaeckel & Geldermalsen 2006)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정책적으로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 외에 협동조합, 풀뿌리 공동체, 대안 경제 공동체 등)를 통하여 여성의 공동체 참여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있다. 생활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들이 가장 대표적이는데, 백은미(2012), 이현희(2004), 장수정(2012), 김정희(2001)의 생협 운동 사례 연구는 대체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생협 운동의 의의를 여성 참여자들의 사회참여에서 찾는다. 살림과 돌봄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여성 참여자들이 생협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가족 내에만 존재하던 자신의 위치성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위치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생협뿐만 아니라 생활 정치의 중요성이 부상했던 이전의 운동 논의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있었다. 공적 영역에서 비가시화되고 사적 영역으로 활동영역을 제한 당했던 여성이 생활자치 운동을 통하여 공적 영역에서 주체로 등장하게 되며 철저히 이분되었던 공사 영역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는 주장(장미경 2002)이 그러하다. 한편, 지역화폐 한발레츠의 사례를 탐구한 조옥(2013)에 따르면, 한발레츠는 참여자 비중과 총거래량에서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는 등 여성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 대안 화폐 운동은 대안 경제 운동일 뿐만 아니라 일상을 나누는 생활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 이슈에 영향을 받고 유동적인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중추적인 역할

을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이 생협 운동 등 ‘살림’을 주제로 하는 활동에서의 여성들의 위치 변화와 역량 강화에 관한 논의는 그간 이러한 운동에 가해졌던 비판과 우려를 긍정적 검토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살림과 관련된 운동은 어머니 정체성에 충실한 유자녀 주부 중심의 활동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반여성적 운동이라는 견해를 비판하고, 살림운동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조명하게 한 것이다 (김정희 2005 참조). 실제로 생협 운동과 여성운동 사이의 긴장에 대하여 한살림 생협과 여성민우회 생협 비교를 통해 설명한 꿈지모(2004)는, 생명 운동 차원에서 출발한 한살림 생협의 경우 성별 분업에 대한 비판의식과 주부 위치에 있는 여성의 활동 조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살림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대다수 참여자인 주부들의 고민과 정체성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여성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민우회 생협의 경우는 생태적 가치의 실천(예를 들어 좋은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일)이 여성의 가사 부담을 강제시키므로 여성운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여성들이 담당해온 재생산 영역과 돌봄의 가치를 여성운동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2) 공공성과 마을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맥락에 따라, 목적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 정의되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쓰는 사람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사이트 준이치는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첫째,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이라는 의미, 둘째,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common)”이라는 의미(공통의 이익·재산,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 공통의 관심사 같은 것), 셋째,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open)”는 의미로 구분되어 쓰인다고 했다(사이트 준이치 2009, 18). 이와 유사하게 공공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 요소를 추려낸 조한상(2009)에 따르면, 공공성의 핵심 요소는 인민, 공공복리, 공개성이다. 인민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민을 가리키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범위와 이름을 시민, 국민 등으로 달리해왔다. 공공복리는 특정 개인의 복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복리로서, 종종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남용되는 위험성을 갖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공개성은 공공복리 여부를 합의하는 절차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조건으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공공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조한상 2009, 34).

한편, 사이트 준이치는 공공성이 국가주의에 전용되어 국익과 동일시되는 데에 반대하며 공공성의 조건을 ‘공동체’(사이트 준이치가 말하는 공동체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를 강조하는 내셔널리즘이 내세우는 가치로서

의 공동체이다)와의 대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첫째, 공공성은 닫힌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형성한다. 둘째, 공공성은 내셔널리즘이 강조하는 균질적 가치의 공간인 공동체와는 달리 구성원들이 서로 이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조건을 갖는다. 셋째, 공동체에서 통합의 매체가 구성원의 애국심, 동포애, 애사심 등의 정념이라면, 공공성에서 통합 매체는 이와 달리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과 사건에 대한 관심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은 정체성의 공간이 아니므로 일원적·배타적 귀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성의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복수의 그룹에 다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준이치가 공공성에 이어 가장 집중한 것은 공사 구별에 근거하여 사적인 것을 배제하는 문제이다(사이토 준이치 2009).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의해 ‘공공적인 것’이 반사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공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사적’이라고 하는가 하는 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가정폭력이나 성희롱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사적인 ‘불운(misfortune)’,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참고 견더야 하는) 문제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공공적인 ‘부정의(injustice)’로서 재파악되게 되었다. 또 가족이 해야 하는 ‘사적인 일’로 여겨진 돌봄(care)에 대해서도 불안 전하나마 공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공사 경계의 변화는 경계를 넘어 발언하는 담론의 실천이 누적된 효과이다. …… 공공적 공간은 공사의 경계를 둘러싼 담론의 정치가 행해지는 장소이지, 공공적인 테마에 관해서만 논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다. 무엇이 공공적인 테마인가는 의사소통에 선행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사이트 준이치 2009, 35-36).

일반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다수에 의해 무시되었던 사안들이 새로운 담론의 공간, 즉 대항적 공공권(또는 대안적 공공권)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로 다루어진다. 준이치는 대항적 공공권에서 ‘친밀권’의 성격을 짚어내는데, 이는 대항적 공공권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의견이 타자에 의해 경청되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자기주장의 실행에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와 공공성을 연결시켜 논의하기 위해서는 로컬리티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공공성에 저항하며 시민적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공적인 이슈의 해결에 제한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뿐 가사노동 등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문제의 해결 또는 공사 영역 분할의 재배치까지로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 가능성을 로컬리티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민 도서관을 통해 로컬리티와 공공성의 재구성을 살펴본 하용삼과 문재원(2011)은 로컬 공간을 토대로 하는 생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상의 교류, 갈등, 사적 경험들이 발생하는 현장인 로컬공간이 공공성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생활상의 이익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고, 형식에 있어서는 대의민주제가 온전히 실현하기 힘든 민주적 소통과 자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사적 공간에 있던 개인들이 새로운 공적 주체로 거듭나고 사적 영역에 갇혀 있던 미세한 사안들이 공동의 관심사로 재탄생한다는 점을 주민 도서관 사례에서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다수의 도서관 운영 주체는 여성들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지역공동체와 여성’ 논의와 연관성을 갖으며,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공공성과도 관련이 있다.

지역에서의 공공성 이슈를 도시공동체에 적용하면서, 정성훈(2013)은 하버마스의 공공성 이론의 한계로 공론장 형성에서 여성의 배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점과 “친밀 관계의 재현에 대한 관심 부재(318~319)”를 지적한다. 그리고 공공성과 관련하여 도시 공동체의 열린 가능성에 주목한다. 공동 자녀 돌봄 등을 통해 핵가족을 보완하는 우정의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 즉 가족을 넘어서 친밀한 관계의 재구성이 가능한 곳으로 도시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주변화되었던 여성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정성훈 2013).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서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은 여성에게 공론장 참여의 열린 가능성 외에 젠더화된 돌봄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돌봄이 공공성을 띠면서 국가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동체 역시 돌봄 제공의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돌봄 부담이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백영경 2017). 본 연구는 여성이 마을에서 공공성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한계로 작용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조직과 참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개념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하던 ‘마을’의 개념은 현대 도시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혈연 등으로 인해 동질성을 갖추게 된 자연적 공동체라기보다는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여 구성된 의도적 공동체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마을공동체 성격에 더 적당하다. 그럼에도 마을공동체는 목적과 지향만 맞다면 공간을 초월하여 결성할 수 있는 여타 조직들과는 달리, 부분적으로나마 한계 지워진 공간과 관계의 범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마을공동체의 주요 조건으로는 “관계망(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 소통 범위(주민의 서로 얼굴을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범위), 적정 규모(행정구역 최소 단위인 “동”보다 작은 규모)”가 통용되는 것으로 본다(한국조직학회 2013, 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 계획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의지와 활동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망”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조에서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용어 정의를 기반으로, 지역 내 근거리

〈표 1〉 사례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명	활동지역	활동 시작 연도	주요 활동
마을N도서관	은평구 갈현 1, 2동, 대조동	2000년	- 카페 마을N 운영 - 청소년 징검다리 거점공간 '작공' 운영 - 문화예술학교 추진 - 갈현2동 상상공물 활동
성대골사람들	동작구 상도 3, 4동	2009년	-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운영 -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설립, 마을기업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 에너지관련 교육
감성마을 협동조합	중랑구 면목 2, 5동	2010년	- 감성마을협동조합으로 간식가게 운영 - 오사랑 공부방 운영 - 푸드케이터 양성과정 진행

에서 결성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모임을 마을공동체라 칭하기로 한다.³⁾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마을공동체 중에서 마을N도서관, 성대골사람들, 감성마을협동조합 사례와 그 참여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초기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와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곳, 기존 사회단체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곳, 마을공동체 조직과 전개 과정을 볼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역사와 활동성을 가진 곳을 조건으로, 마을 전문가들의 조언과 기존 마을 활동가 대상의 사전 면접을 통하여 이 마을들을 선정했다.

3) 단, 행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적용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마을공동체는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 및 인증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세 마을공동체 모두 ① 아이를 매개로 한 자발적인 주민 모임에서 출발하여 ② 일종의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을 포함한 활동으로 전환해왔으며 ③ 사업 내용의 전문성과 활용 가능한 거점 공간을 가지고 마을로 활동을 확산하고 있다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육아를 위한 모임에서 영역을 확대해나갔으며 절대다수의 참여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특성 및 진화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들이라고 볼 수 있다.⁴⁾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개 마을공동체 사례 분석으로서, 심층면접과 현장탐방을 기본으로 각 마을공동체 조직활동과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2015년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하였으며, 먼저 본조사에 앞서 5명의 타 지역 마을 활동가를 대상으로 사전면접을 실시하여 조사기획을 보완하고 면접 질문내용을 다듬었다.

마을공동체 활동내용과 개인의 참여 경험을 들려준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19명이다. 심층면접 대상은 ‘마을 활동에 2년 이상 참여한 여성’이라는 조건을 두고, 이 밖에 연령이나 결혼상태, 마을공동체 내 직함의

4) 이들이 구성원과 조직화 성격에 있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이상적인 마을공동체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 선정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또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닌 이 세 마을을 비교하거나 유형화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유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섭외하였다. 대표들과 먼저 심층면접을 실시한 뒤, 구성원을 소개받아 스노우볼 샘플링 방식으로 다음 면접 참여자들을 섭외하는 방식을 택했다. 마을N과 감성마을의 경우 공동체 활동가 거의 전원이 면접에 참여했다.

면접은 전원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일대일 면접의 이유는 마을공동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 기술보다 개별 여성의 마을 활동 참여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소속 공동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면접 장소는 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공간에서 주로 진행하였으며, 공동체 공간 근처 카페 또는 참여자 자택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면접 전 연구참여동의서 서명 절차를 거쳤으며, 시간은 일인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을 끝낸 후 각각의 마을공동체에서 집단 간담회를 열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할 의견, 정책지원 요구 등을 취합하였다.⁵⁾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만 33~50세의 연령으로 대부분이 40대이며, 전원이 배우자를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의 표준”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면접 참여자들 중 4명은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일 외에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

5) 간담회의 목적은 조사 대상 마을의 면접 참여자들이 연구 결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또한 일대일로 진행되었던 심층면접과는 달리 집단 대화를 통해 의견 교환과 토의가 가능하여 개인 면접으로부터 얻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2〉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소속	연령	직업	결혼상태	자녀수	학력
A	마을N도서관	50	마을 활동가	기혼	3	대졸
B	마을N도서관	49	마을 활동가	기혼	2	대재
C	마을N도서관	49	주부, 마을 활동가	기혼	2	초대졸
D	마을N도서관	49	지역활동가	기혼	2	대졸
E	마을N도서관	52	카페미담	기혼	2	대졸
F	마을N도서관	49	카페지기	기혼	2	대졸
G	마을N도서관	50	청소년기관 교사	기혼	0	박사수료
H	성대골사람들	46	환경운동가	기혼	2	대졸
I	성대골사람들	39	마을 활동가	기혼	3	대졸
J	성대골사람들	46	에너지활동가	기혼	1	고졸
K	성대골사람들	37	에너지·기후변화감사	기혼	2	대졸
L	성대골사람들	40		기혼	2	대졸
M	성대골사람들	33	연극연출가	기혼	1	대졸
N	성대골사람들	49	마을 활동가	기혼	2	대졸
O	감성마을협동조합	49	사업체 대표	기혼	2	대졸
P	감성마을협동조합	42	자생단활동가	기혼	2	초대 중퇴
Q	감성마을협동조합	45	전도사	기혼	2	대졸
R	감성마을협동조합	48	주부	기혼	1	대졸
S	감성마을협동조합	42	주부, 마을 활동가	기혼	2	초대졸

주: * 직업은 참여자 스스로 규정하는 대로 표기하였다.

었는데, 이 외에 대다수 면접 참여자들은 마을 활동 이전과 시작 시기에 전업주부였고, 결혼 전 짧게 직업을 가진 경우는 있었다. 참여자의 마을 활동 수준은 동일하지 않았으나, 모두 비교적 적극적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3. 돌봄의 확장

1)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들”로: 인식과 관계의 확장

마을N도서관(이하 마을N), 성대골사람들(이하 성대골), 감성마을협동조합(이하 감성마을)은 모두 마을에서 아이를 통해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사적인 모임에서 시작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이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유로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게 되었다. 세 마을 공동체 모두 초기 활동의 중심이 어린이도서관 만들기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활동이 시작되던 당시는 참여자 본인의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바람이 활동 동기의 거의 전부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사실 제 욕심에는 애들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엄마가 도서관에 가면 애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었죠(C씨).

내 아이를 위한 필요는 도서관 부족이나 열악한 교육환경과 같은 지역문제 인식과 연결되었다. 세 마을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어린이도서관이 없어 불편해하던 상황이었고, 나아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성대골이 위치한 동작구 상도동에는 가까운 거리에 마땅한 초등학교가 없고 등갓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 마을N이 위치한 은평구 갈현동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는 점, 감성마을이 위치한 중랑구 면목동은 전반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고 학업 수준이 높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면목동에서 마을 활동을 시작한 S씨와 O씨는 아이들의 먹거리와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주민 소득수준 및 지역 낙후성과 연관 지었다.

저는 계속 신도시에 살아서, 교육 인프라라든지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았죠. 거기서 살다가 여기를 오니까 한 4~5년은 정이 안가는 거예요. 주변 환경도 너무 더럽고, 아이가 한 세 살쯤 되면 문화 프로그램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럴 만한 데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고, 기관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S씨).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지점이 뭐냐면, 2012년에 실은 자료를 보면, 중랑구 청소년 비만율이 2위였어요, 서울시에서. 비만율이 부모의 소득하고 반 비례하거든요. 왜냐면 정크푸드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O씨).

이상과 같이 마을에서 느낀 결핍과 그 해결을 위한 고민은 향후 감성 마을 활동의 주제인 먹거리 제공과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을 활동의 출발이 ‘내 아이’에서 비롯되었다면 활동의 전환을 통해 ‘우리 아이들’로 관심이 확대된다. 마을공동체는 “협동적 삶과 참여의 경험을 제공하는 배움의 터이기에 사람들에게 연대의 감정과 보살핌의 윤리를 스스로 떠맡는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나종석, 2013)”이라 기대되어왔다. 면접 참여자 대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 아이’ 돌봄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에서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의 개념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엄마들의 사적 네트워크가 마을 활동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서 내 아이 또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함께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마을공동체 초기의 모임은 자기 아이를 잘 돌보고자 하는 욕구와 개인 또는 한 가족의 힘으로 채우기 힘든 결핍을 메꾸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그 욕구의 충족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그런데 참여 당사자들의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과 여성 본인, 그리고 마을 전체를 위해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아이를 위한 필요가 충족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책을 안 읽거나 중학교 올라가면 도서관을 그만두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한 축의 엄마들은 ‘내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도서관의 자원봉사가 의미가 없는가, 다른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엄마가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봉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 두냐고 했더니 자기는 엄마의 자격이 없는데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도서관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일주일에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고 그 엄마도 우울했던 시기니까. 그 엄마가 도서관에 앉아 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에서 도서관의 자원 활동은 내 아이도, 우리 아이들도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A씨).

아이들 돌봄에서부터 시작한 관심사의 확대가 교육문제 뿐만은 아니었다. 앞서 부모의 낮은 소득수준 때문에 마을 아이들이 정크푸드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감성마을에서는 간식가게와 더불어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으로 고민과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

그런 지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소득이 낮더라도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 첫 발자국이 이런 간식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먹거리 교육, 요리체험, 그리고 이 먹거리들이 어떻게 왔는지, 재배와 순환 시스템은 …… 사실은 다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O씨).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엄마들이 직접 먹거리 공부를 하여 진행하는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주변 초등학교에 제안하고 실행하는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아이들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엄마들의 관심사에 따른 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인식의 지평도 넓어지게 되었다. 마을도서관 자원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던 마을N의 여성들이 카페를 만들었을 때, 작은 카페 운영을 통해 경제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도 갖게 되었음을 A씨의 이야기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저희가 800인분 도시락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10시 반에 모여서 다음날 10시 반에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 적자는 우리가 무능해서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경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죠.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회적 인식과 관계의 문제도 업그레이드되었어요(A씨).

이처럼 마을N이 마을카페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고민을 확대한 경우라면, 성대골은 에너지 이슈에 주목하여 에너지 자립 마을로 활동의 중심을 가져가게 된 사례이다.

그때 계기는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바로 가까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진짜 그때는 대혼란이었죠. 우리나라까지도, …… 그런데 그 일이 그냥, 그 에너지 일이 단순하게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 켜던 에너지가 사실은 그게 안전하고 직결이 돼서 …… 아이들의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서 하게 된 거죠. 별개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켜던 거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중 일은 아이들 몫이 되는 거니까(K씨).

사적 네트워크가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또는 아이들 중심에서 실제 활동의 주체인 엄마들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을 맞이할 때, 활동의 주제는 애초 지향점이었던 아이들의 행복과 연결되면서도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는 경향을 띤다. K씨가 소개하는 에너지 관련 활동도 아이들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리는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근본적이고 넓은 주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식의 확장과 더불어 인간 관계의 확장은 마을 활동에 참여한 개인들의 성과이자 활동의 동력이 된다. 많은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마을 활동 후의 성과 또는 변화로 ‘이웃이 생겼다’는 점을 꼽았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말로 FM 같은 말이지만 마을 하나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 있을 때, 학교 끝나면 두 시나 세 시 정도 되면 아이들 놀러오거든요. 개들이 다 우리 아기랑 놀아주고, 커가는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성장을 함께 하고……(M씨).

저 같은 경우는 큰 아들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럴 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딱히 어떤 것을 해주지는 않지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D씨).

육아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가까운 이웃의 존재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M씨와 아이의 사춘기로 인한 위기를 함께 풀어간 D씨의 이야기처럼, 마을공동체는 여타의 사회운동단체 또는 직장과 달리 거주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나누는 데서 오는 특성과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다수의 참여자가 언급했던 것이 가치의 공유와 자기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근거리에 살며 아이를 키우는 공통점 외에 추

구하는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사적인 이웃 관계에서 나아간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꼽힌다.

삼십만 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우선은 같이 하는 게 좋았어요. …… 열의는 있는데 아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든데, 거기서도 계속 함께 하는 것,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좋았어요. 인맥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마을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고맙고 계속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같이 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P씨).

7인의 공동 카페지기라는 멤버십으로 장기간 활동을 함께 한 마을N 카페의 경우, 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큰 성과로 나타난다. D씨와 F씨는 공동체 활동이 마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노년의 삶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자칫 고립될 수 있었던 마을에서의 삶이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만남으로 달라진 사례들이다.

여기나 나와야 웃지, 우리는 모이면 우리끼리 재미있거든요. 그 재미있는 가치를, 같이 밥 먹는 기쁨, 집에 혼자 있으면 혼자 반찬 하나 꺼내놓고 먹을 텐데, 또 생일 파티해주는 기쁨. …… 저희가 다 말하기를 노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자. 이런 힘든 일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것

을 또 우리는 할 것이다. 서로가 나는 “계를 들었어, 저 사람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준대” 이런 식으로(D씨).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동네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마을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없었으면 제 스스로 각박하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F씨).

흔히 친밀한 관계는 종종 공공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시민들이 공공 가면을 통해 감춰야 하는 것으로 사적 이해관계와 사적인 친밀성의 감정을 들었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승훈(2011)은 시민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공공성에 포함되는 “공정성” 내지 “불편부당함”, 즉 사적 이해관계나 친밀한 관계를 초월하거나 적어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의 마을공동체에서 볼 수 있듯, 공동체 활동을 통해 더욱 친밀해진 이웃 간의 관계가 공공성 추구에 있어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공공 영역에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한편, 마을 활동에 참가한 개인이 각각의 마을공동체 안에서 만드는 관계 외에, 지역 내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관계의 확장과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즉 조직의 관계망 확장이다. 마을 안에서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면 주로 자치구 단위에서 결성되는 다양한 협의체 또는 사안별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마을사람들과의 만남과 각기 흩어져 있는 마을공동체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분들이 '작공'에 의미를 두고 지역에서 도와주셔서, 아 이게 우리만의 작공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고, 우리도 조금씩 발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E씨).

지역을 포괄하는 활동을 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서 개별 공동체 구성원의 한계를 넘어 타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기혼, 유자녀, 주부의 공동성을 지닌 해당 공동체 구성원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하는 주변 공동체들,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이슈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일단 친구가 많아지고, 바로 지역만 나서면 여기저기 아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생협이라든지, 이런 안전한 먹을거리 이용할 수 있는 단체도 알게 되었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의료생협. 지역에서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은 살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D씨).

자기 모임을 넘어서는 다양한 단체의 활동을 접하고 교육의 기회를 가지면서 인식의 확장을 이루는 것과 함께, 이들은 마을 활동의 주류 집단으로 간주되는 40대 유자녀 주부 외에 다른 배경과 조건을 가진 이들과의 만남도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이제 카페 자체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하니까, 싱글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성소수자분들도 계시고, 딱 거리낌 없이 섞인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 이게 지역적인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거리낌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미혼이나, 비혼이나 이런 걸로 나뉘기도 하더라고요. 비혼 여성이라던가 성소수자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일하고, 화합하고, 추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리거리낌 없어요… 그것도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아요. 선입견이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측면이 있어요(C씨).

재미있어요. 제 또래의 비혼 여성을 만나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하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경험을 나누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30대 여성을 만나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E씨).

마을공동체 내부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튼튼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을 때 여타 마을모임이나 외부인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성을 띠게 된다. 흔히 마을공동체 활동의 비주류로 여겨지는 비혼, 1인 가구, 청년층도 튼튼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마을에서 쉽게 활동에 합류하고 융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대골의 경우 에너지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후 최근 청년 모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마을 활동의 주류인 기혼·유자녀 주부 집단에서 지역 내 타 모임과

의 교류를 통해 다른 주민들의 요구를 이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연령, 세대, 정체성을 뛰어넘는 소통이 마을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공공성 추구와 고민들

위의 사업 전환과 인식·관계의 확장 과정은 마을 활동이 공공성을 갖게 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앞의 장에서 다루었던 공공성의 요소들, 즉 구성원 모두에 관계되는 주제, 공익, 열린 논의(공개성)를 고려하고 갖추어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관계망의 확장, 특히 공동체 외부의 주민 및 지역 내 다른 모임들과의 네트워킹은 지역주민 모두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희가 네트워크 활동하면서 마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내 아이를 위해서 도서관을 시작했으나, 네트워크 하면서 지역축제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이슈, 학교 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행사 이런 것들을 참여하게 되면서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는 개념을 획득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죠(A씨).

소수의 적극적 참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함께 만나는 계기로 공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마을도서관, 마을카페, 그리고 감성마을의 활동공간인 간식가게는 모두 이러한 역할을 해낸 공간이다.

뿌듯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여기 항상 지나가면서 그냥 물 마실 수 있을 수 있고, 그냥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런 인식들 있잖아요. 여기서 요리수업 했던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다고 떼 쓰기도 하고. 엄마들이 여기 오면 항상 무엇인가를 주니까 자기들도 올 때는 무엇인가를 사오게 되고(S씨).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공동체 가치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이 만나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류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형 공공장소와 달리 소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 갖는 친숙함은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게 하고 상호적인 지원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Jaeckel & Geldermalsen 2006).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으로 일컬어지는 “주민에 의한 공간”, “협동의 공간”, “소통과 의미의 확산 공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 중에서, 특히 소통과 의미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사례 마을의 공간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상업적 카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관계의 형성 없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 카페에서는 방문자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와 연대의 형성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4, 15-16).

한편, 마을공동체 활동이 공공성을 저절로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활동 추진 과정에서 활동 주체들의 고민과 자기 점검을 동반하게 된다. S

씨는 감성마을 활동 초기에 관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을 신청하면서 특정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고민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는 맨 처음에는 다른 주민들과 왜 돈을 나눠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너와 내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도 갈 수 있는 혜택이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정립이 안 되었는데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다른 부모들은 “시에서 돈 나온대” 이 정도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S씨).

마을N의 경우 작공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분명한 공익적 성격을 갖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비교적 적었지만, 이와 달리 카페의 활동에서 공공성을 찾는 데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특히,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기여 문제에 있어 마을N 활동가들을 비롯해 여러 면접 참여자들이 민감한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세금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책임감과 연결하여 사업의 내용이 공공성을 띠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카페가 무슨 공익성이 있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 해야 될 것, 했던 좋겠는 것 씨 붙여서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나라는 고민도 하고. 요즘도 계속 고민하고 있죠. ……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을 받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카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세금을 받아다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C씨).

사업의 목적과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제와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토의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제가 마을 지원 활동가를 하면서도 마을기업을 하기 전 단계의 공동체 활동은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 원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 기반인 거잖아요. 주민 기반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철저히 무시하죠. 엄마들이 이런 것들은 해봐야 해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 제안을 했으니까 이거 어때, 참여해 봐 이런 식인 거죠(S씨).

S씨는 마을 활동 초기에 공동체 대표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로서, 구성원들의 심도 깊은 토의에 의해서라기보다 주도자 한 두 사람의 제안으로 사업 추진을 했던 오류에 대해 반성한다. 초기의 오류는 이후 지속적인 고민의 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될 때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고민 과정에서 개인의 욕망을 짓누르거나 사회공헌에 지나치게 압도당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성찰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마을 활동의 시작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였고 활동 지속이 구성원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사업이 확장되면서 갖는 부담을 벗고 개인의 욕망에 충실할 것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기도 한다.

그냥 예전에는 의미나 하는 일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냥 재미있게 지내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들어오는 우리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일하고 나가는 것들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부담을 많이 털어버리고, 우리가 재미있게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게 결국은 전체적인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고(E씨).

마을에서 모인 여성들에게 활동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감하게 공공성을 고민하는 모습 한 편에, 부담을 덜고 자기 욕구의 충족과 재미 추구를 인정하는 모습은 마을 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시사점, 즉 개인의 욕구와 대치되지 않는 공공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또한, E씨의 이야기는 기계적인 공익 추구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와 조직의 활동 전반이 자연스럽게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는

자각과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업 주체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양적 팽창보다는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는 마을 활동 특유의 공공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4. 여성 마을 활동의 한계와 딜레마: 저평가 무보수 여성의 일

참여자 중 특히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들이 마을 활동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동체 내부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적 보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먼저 감성마을의 경우는 먹거리와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푸드케이터 양성을 도모한다. 또한 2명의 적극적인 마을 활동 참여 여성을 자치구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로 배출하기도 했다. 먹거리를 테마로 한 감성마을에서 활동과 관련해 모색한 일자리가 푸드케이터라면, 에너지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성대골에서는 에너지·기후 변화 강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마을N의 경우도 작공의 상근 교사를 비롯한 일자리가 있는데, 위의 두 대표처럼 마을N의 대표 A씨도 마을에서 여성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의견을 피력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곳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공 같은 조그만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의 전문성이 발휘되고, 아이들 성장하고, 자신의 자녀들도 크고, 여성들도 커나가고 그러면서 돌봄의

능력들을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A씨).

한편, 마을 활동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의 전문성을 살리려는 욕구도 생겨났다. 여기서 전문성을 살린 일이란 반드시 수입을 갖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모임 내지 소소한 참여가 ‘활동가’의 활동으로 발전하는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전문성은 장기적으로 미래의 활동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력 관리가 될 수도 있다.

자원봉사가 이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자 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팀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경력이, 경력이 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A씨).

참여자들은 마을의 활동이 압도적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여성의 의지와 장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성의 활약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인정받는 활동가가 되는 데 있어 여성들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뭐든지 성공을 하려면 물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자들은 주부들, 아이 키우고 그러면 늘 힘들고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핑계가 있는 거예요. 애가 아파. 남편이 싫어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서. 친정어머니 올라 오셨어 등

이런 숨을 곳이 많아요. 물론 그게 다 사실이고 일어나는 일이지만 남자들은
 이거 없잖아요. …… 제가 볼 때는(가정의 일 일부는) 포기를 하고 몰입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지(H씨).

활동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일부 잃는 것(집안 일)을 감수하더라도 몰
 입하는 것이 이른바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러한 견해는, 가족을 돌
 보는 일을 여성들이 일종의 핑계거리나 도피처로 사용한다는 편견을 일
 부 보여준다. 그런데 가족 돌봄 역할 수행이 단지 핑계라기보다는 결국
 인정받는 활동가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조건일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
 내기도 한다. 즉 여성들이 마을 활동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공적 영역으
 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가족 내 돌봄의 주 수행자로서 제한이 뒤따르
 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조차 노동시장에서와 유사한 능동성과 경
 쟁력 강화의 논리가 강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개인의 능동성이 노동시장에서 경쟁 능력 유지와 강화에 이용
 될 때 “능동성”은 활동적이지 않으면 충분한 삶의 보장을 얻을 수 없다
 는, 강요된, 보다 깊은 수동성으로 발휘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사이트
 준이치 2009, 101)”는 지적을 고려할 만하다.

여성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참
 여하고 있는 일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는 것
 을 I씨의 이야기로부터 환기시킬 수 있다.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단순히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진짜, 어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여성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갖고 있는데, 리더십 측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더 여성 활동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한 대우라든지, 아니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 저도 쉽게 힘들어지고 놓게 되더라고요. 그걸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놓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1씨)

이는 여성 참여자 개개인의 각성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활동 관계자 모두의 과제, 즉 환경의 조성에 의해 가능함은 물론이다.

여성에 의해 마을 활동이 유지되는 데 반해 이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점을 비판하는 의견이 참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대개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 차원의 돌봄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무급의 여성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지역의 연대나 자원봉사가 사실은 정부의 사회보장을 지탱하고 보완하는 “하청”의 역할을 하기 쉽다는 점(사이토 준이치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일차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여 다수의 적극적 마을 활동 참여자들이 무보수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들어오면서 인건비에 대한 요구가 되니까 ‘왜 여성의 노

동을 마을공동체라는 것으로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죠. 남성들이 돈을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인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을공동체사업을 가져오면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마을공동체사업은 여성의 노동력을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해요(A씨).

지역경제의 발전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생산성 또는 공인된 자격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식으로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엄청난 양의 무급노동을 해온 여성들의 비공식 노동을 지원·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Jaeckel & Geldemalsen 2006).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전히 여성을 동원하여 무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가 큰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죠. 꼭 가정 일을 무보수로 하는 거랑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지역 일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 집에서도 가사노동 때문에 돈을 못 받는 엄마들을 지역에서 또 돌봄 서비스 이런 거는 평가는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열정 페이로 하는 건 아니죠. 그게 제일 속상하고, 여성들 이중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O씨).

마을공동체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이들 참여자의 입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성 노동력의 착취”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이전에도 여성들은 무임으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자원 봉사자로 쉽게 동원되어왔다. 여성 스스로 자발적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 여성들의 강점이 마을에서 구현되는 데 있어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원 기능 대신 이들을 무임 인력으로 대상화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마을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다는 문제, 더 나아가 주민(여성)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방식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즉, 마을 활동이 행정에 포섭되고 지자체의 대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비판적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남성들이 하지 않는 무보수의 일을 여성에게 전가시킨다는 의견, 열심히 밑바닥에서 일구어 놓은 일이 결국 남성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다 자리 잡아놓으면 남자들이 다 채어간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밑에서 바탕으로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날 고생만 하고 가잖아요. …… 서울시 마을 사업을 비교해보면 천만 원 이하는 95% 이상 여자들이 하고 있고, 오천만 원 이상은 대부분 남성들이 하고 있고. 마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 중에 서울시가 발탁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고. 센터, 중간조직 이런데도 남성들이 많아 있는데, 그들끼리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J씨).

여성들이 많다는 것은 마을살이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마을에서 여성 활동가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돌면 남성들이 대거 다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결국에는 대상화되고 동원되고. 저는 마을에서 지금까지 여성이라는 존재가 해왔던 돌봄, 며느리가 시댁 식구 챙겨야 되고, 딸이니까 챙겨야 되고, 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는 동네 아이까지 키우라고 하고(H씨).

J씨를 비롯한 여성 참여자들의 문제제기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액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남성 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이 정확한 통계로 제시된 적은 없다. 그러나 대체로 사업비가 적은 부모 커뮤니티와 같은 사업이 돌봄과 연관 있는 주제로 여성 참여가 많을 것으로 간주되는데다, 여성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비판적 인식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지원사업 수혜에서의 편차와 더불어 중간조직 진출과 관련한 사항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마을공동체에서 민간 차원의 지역 활동은 여성이, 중간 조직이나 행정으로 옮겨가는 역할은 남성이 맡게 되는 공사 분리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마을 활동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내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기해온 N씨는 수년간의 적극적 활동 후에도 여전히 남는 전문성 문제에 대하여 고민 중이다. 활동의 경험이 쌓임과 동시에 늘어나는 전문성에 대한 욕구와 실제 인정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는 데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학교가 공식적으로 세워진다면 결국 공인 ‘자격증’이

없는 본인은 마을교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활동가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아줌마”로만 인정받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의식을 내놓았다.

남자 활동가들 중에 많은 수가 여성 활동가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특히 성대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같은 활동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면 “성대골 아줌마들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다른 행사하고 뒤풀이 하는데, 그 분은 너무 좋아서 “어우 여기 성대골 아줌마가 뒤풀이 몇 명이 온 줄 알아? 세 명이나 왔어. 성대골 아줌마 대단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이 몇 번 이야기한 걸 듣고도 다 넘겼는데, 그 날은 더 이상 그 말 듣고 싶지 않다. “다들 활동가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선생님 이러면서 왜 성대골 이야기할 때는 아줌마라고 하느냐. 나 그 말 싫다.”
…… (N씨).

여기서 마을공동체 활동 주체인 여성들에 대한 시선은 이전에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받았던 시선과 일부 유사성을 갖는다. 협동조합(특히 생협)이 중산층 여성들의 활동 무대라고 불리는데, 이는 남성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이 가진 편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유를 가진” 주부들의 운동이라는 냉소적 의미를 포함한다(하승우 2012). 마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먹고살 만한 중산층” 또는 “동네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활동으로 여기고 참여자들 스스로조차 자조 섞인 농담으로 이러한 언급을 하기도 한다(현장전문

가 인터뷰). 이는 단지 인건비/활동비 지급 여부의 문제를 넘어 여성 주체의 마을 활동 가치 평가의 문제가 되었다. 마을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여성노동의 저평가는 기존의 젠더질서 재생산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위선으로 여기질 수도 있다.

5. 나가며

이상에서 3개 사례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이 여성 참여자에게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매개로 한 사적인 네트워크에서 시작하여 조직적인 모양새를 갖추면서 사업의 주제를 전환·확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참여자들은 인식과 관계의 확장을 이루어 돌봄 가치 확산과 공공성 추구의 주체가 되는 성장을 경험한다. 이러한 성장은 구체적으로는 교육 참여, 공동체 내부 학습, 소통과 관계 형성에 관한 훈련, 사업 기획과 진행 과정에서 얻는 실무 능력과 성취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마을과 여성의 관계, 즉 마을 활동을 통해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여성의 경험과 노력에 의해 마을공동체 가치 실현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요구와 공적 목적 사이의 조화 지향, 양적 팽창보다는 가치 확산 강조, 세금지출의 책임성 등에서 나타나는 감수성, 내부 소통에 대한 성찰, 그리고 친밀성 기반 등 여성과 마을 공공성의 특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개인 차원의 돌봄에 관한 필요와 욕구 충족을 넘어 주제의식과 영역을 확장하면서, 참여자들도 단순 참여가 아닌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때 동반되는 경제적 욕구는 책임 있는 역할의 규정, 활동의 지속 가능성 보장, 전문성 추구하고 인정 문제 모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마을 활동 참여 여성들은 현재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경제적 보상과 전문성 인정 양 측면 모두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인건비 지급이 제한적이므로, 행정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무보수로 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동원·대상화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라기보다는 사업에 동원되는 “자원봉사 아줌마”로 취급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성들의 경험과 기여가 이해·인정받지 못한 채 마을이 필요로 하는 돌봄 활동을 이들이 전담하다시피 한다면, 이는 가족 내 가부장성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것에 불과하다.

돌봄 가치의 확산과 공공성이라는 이론적 프레임에 맞추어 여성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갖는 함의를 논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탈가부장성을 지향하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여성들의 마을 활동 경험을 탐구하였다. 가족 내 돌봄이 지역에 의한 돌봄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여성에게 의무 지워지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여성=돌봄’ 역할이 고착화되어 오히려 기존의 성별 분업과 여성의 불평등한 위치를 마을공동체라는 이름하에 지역사회

로 확장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공동체가 관(행정)의 ‘사업’이 될 때 여성이 사업의 동원 대상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가정의 가부장 위치를 지자체로 고스란히 이동하여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을 활동은 여성을 단순히 동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을공동체에서 돌봄의 가치 실현과 확산에 여성이 해낸 역할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단지 살림과 돌봄에 대한 여성의 헌신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돌봄 자체의 재평가와 중요성 인정이 필요하다. 젠더화된 돌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살림과 돌봄의 재가치화가 필요한 것이다. 살림과 돌봄의 재가치화는 노동시장에서 이미 오랫동안 돌봄 노동에 대해 저임금의 열악한 처우를 해온 것에 대한 비판 및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관찰과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마을 활동을 재의미화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실상 대다수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화된 사업임에도 젠더 관점에 의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영역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강조해온 ‘주민 주도의 민관 협력’ 원칙에서 ‘주민’은 주로 관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또는 기존 단체가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른바 신규 주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호명되어온 주민 안에서 여성들이 갖는 조건과 위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주민’이 관 또는 기존 단체의 상대 개념

으로서 지금까지 공공 영역에서 주체로 나서지 못했던 이들을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가정에 머무르고 있다가 마을에서 쉽게 무급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많은 '성공한' 마을공동체 사례들이 돌봄의 사회화라는 여성주의적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여성주의적 가치가 거의 부상되지 않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가진 여성주의적 공동체 문화를 분명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강화·확산되는 대신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성이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성평등적이고 돌봄과 살림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돌봄 중심의 전형적 사례들 위에 주체와 내용 면에서 전형성을 벗어난 새로운 모임들(비혼 여성 공동체 등)의 발굴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 참여자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행정의 각성, 즉 공무원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의 인식 고양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대안적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행정 지원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대안적 민관 협력을 구현하는 것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늘 강조되어왔음에도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는 과제이다. 이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마을공동체를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행정의 하부 단위로 상정하거나 재정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 작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부장

성이 지자체로 이동하여 여성이 돌봄 담당자로 동원되고 만다는 우려 지점을 해결해야 한다. 주민의 역량과 자발성에 기초한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돌봄의 사회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공적 개입과 지원의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즉,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틀에 주민이 참여한다기보다는 주민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강화하면서 돌봄 가치를 확산하고자 할 때 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55~~

참고문헌

- 김영선. 2013. “마을인문학과 여성주의.” 『사회와 철학』 26. 33-56.
- 김정희. 2001.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한국의 도시 지역여성운동: 수도권 소비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18. 133-154.
- _____. 2005. 『생명여성정치의 현재와 전망』. 푸른사상사.
- 김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꿈지모. 2004. “생협운동, 여성에게도 대안인가?: 한살림 생협과 여성민우회 생협의 비교 검토.” 『환경과생명』 40. 164-175.
- 나중석. 2013. “마을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 ‘마을인문학’의 구체화를 향해.” 『사회와철학』 26. 1-32.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43. 5-43.

- 백영경. 2017. “복지와 커먼즈: 돌봄의 위기와 공공성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 45(3). 19-38.
- 백은미. 2012. “생협운동 경험을 통한 여성들의 살림 가치에 대한 의미 고찰: icoop생협 부산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2). 71-107.
- 사이토 준이치. 2009.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이음.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3.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성과자료집』.
- _____. 2014. 『커뮤니티공간 안내서』.
- 안현찬·구아영.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 유창복.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환경철학』 15집. 173-226.
- 이승훈. 2011. “공공의 시민 만들기: 자발결사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공사회학회 편. 『시민성과 통치성, 그리고 공공성』. 백산서당.
- 이현희. 2004. “생협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으로서의 가능성.” 『여성학논집』 21(2). 111-150.
- 장미경. 2002. “생활정치와 페미니즘: 생활자치운동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182-199.
- 전희경.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페미니즘 연구』 14(1). 75-112.
-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2). 7-34.
- 정성훈. 2013. “도시공동체의 친밀성과 공공성.” 『철학사상』 49. 311-340
- 조옥. 2013. 『지역화폐와 여성주의: 한발레츠의 경험에서 길을 찾다』. 푸른사상.
- 조한상. 2009.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조한혜정. 2006. “토건 국가에서 돌봄사회로: 여성 네트워크에 의한 새로운 인프라 만들기.” *또하나의문화*.

조한혜정 외. 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또하나의문화*.

트론토, 조안 C.(Joan C. Tronto). 2014.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나상원 역. 아포리아.

하승우. 2012. “협동조합은 ‘충분히’ 여성적인가?” 『모심과살림』 0호. 165-199.

하용삼·문재원. 2011. “공공성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공적영역으로서 주민도서관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66(4). 421-451.

한국조직학회. 2013.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허라금. 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 22(1). 115-145.

Jaeckel, Monika and van Marieke Geldermalsen, 2006. “Gender equality and urban development: building better communities for all.” *Global Urban Development* 2(1). 1-7.

Martin, G. Deborah, 2002. “Constructing the Neighborhood Sphere.” *Gender, Place and Culture* 9(4). 333-350.

Abstract

Urban Community-building Projects and Women The Dilemma of Publicness and Gendered Care

Kim, Young Jeong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s community-building projects aimed at promoting close relationships within the neighborhoods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urbaniz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promoted and supported small community-building projects called *Maeul Gondongche*. In fact, women, especially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conduct absolute majority of these activities. However, gender issues and women's roles in Maeul Gondongche projects have barely analyzed. The paper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eul Gondongche* and women within the frame of care and publicness — the integration of care into public life. Through the analysis of three local communities of women in Seoul, the study found the tendency of women to expend their interests and activities from their home to the local (and even the global issues). The paper suggests the ways in which policies could address gender-sensitive and inclusive community-building projects and empower women as the leaders/initiators of local networks.

■ **Keyword:** Publicness, Care, Gender, Women's Empowerment, Community Support Program

투고 : 2018/3/26 심사 : 2018/4/13 확정 : 2018/5/13